



- 1 다음 그림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일을 알맞게 떠올린 친구는 누구입니까? ..... ( )



- ① 길수: 8살 때 처음으로 운동회를 했어.
- ② 태민: 친구들과 놀다가 다툼 적이 있어.
- ③ 현지: 모두가 힘을 모아 학급 신문을 만들었어.
- ④ 부영: 친구들과 함께 발야구를 하다가 넘어졌어.
- ⑤ 수현: 지난봄에 놀이공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

앞 이야기

이야기의 주인공 '이로운'은 말썽 많고 숙제도 잘 안 해 오는 아이로, 몸이 불편한 누나 이루리를 부끄러워 한다. 2학기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뽑히나, 처음에는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놀림을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임을 받는 1학기 반장 황제하가 반장 도우미를 한다. 하지만 이로운은 조금씩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황제하는 이를 시기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하가 멋진 모습만 보여 주려고 거짓으로 했던 행동들을 이로운이 밝히고, 황제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실망한 눈빛에 충격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반장으로서 한마당 잔치의 합창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이로운은 황제하네 집에 찾아가는다.

(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찌감치 학교로 갔다. 밤새 잠을 설치서 그런지 눈두덩이 빨갛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출입문 쪽만 훑어저라 살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제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다.

'이 자식 정말 전할 갈 생각인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뻣뻣한 눈을 비비며 기다렸다. 어느새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어 갔다.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밀려왔다.

'치사한 놈, 내가 자존심 다 잡고 먼저 사과했는데..... 만나기만 해 봐라!'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부르르 떨었다. 바로 그때 교실 뒷문으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제하였다. 눈을 비비고 봐도 틀림없이 황제하였다. 야호! 나는 조금 전까지 주먹을 떨면서 버트던 것도 잊고, 하마터면 합성을 지를 뻔했다.

- 2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 ( )

- ① 엄마
- ② 황제하
- ③ 선생님
- ④ 이로운
- ⑤ 이루리

- 3 1학기 반장 제하가 반장 도우미를 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① 로운이가 곧 전학을 가게 되어서
- ② 제하가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서
- ③ 로운이가 합창 준비를 할 줄 몰라서
- ④ 로운이가 반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 ⑤ 로운이가 반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어서

- 4 글 (가)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 ( )

- ① 교실
- ② 놀이터
- ③ 화장실
- ④ 운동장
- ⑤ 황제하 집

- 5 글 (가)에서 로운이의 마음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지겹다. → 속상하다.
- ② 초조하다. → 기쁘다.
- ③ 무섭다. → 당황스럽다.
- ④ 기쁘다. → 실망스럽다.
- ⑤ 부끄럽다. → 미안하다.

- 6 글 (가)에서 주인공의 경험을 나타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 (1) 억지로 꾸며 쓰지 않고 겪은 일을 그대로 풀어 썼다. ( )
- (2) 긴 기간에 걸쳐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나타냈다 ( )
- (3)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썼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9)

내 마음을 읽었는지 제하가 묻지도 않고 말을 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녀석이 그런 말까지 하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완벽하게만 보이던 녀석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뜻밖이었다.

“힘들겠구나. 난 아빠랑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싫어서 투덜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다. 제하가 나지막이 웃었다.

“그래도 넌 나처럼 잘 못하는 걸 잘하는 척하지는 않잖아. 난 항상 내 생각만 했어. 그런데 네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려 줬어. 이제 나도 너처럼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게 진짜 당당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

“난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못하니까 못한다고 한 건데…….”

나는 또다시 뒷머리를 긁적였다.

“우리 이제부터 한번 잘 지내보자.”

제하가 내 어깨를 톡 치더니 한쪽 손을 쑥 내밀었다.

7 이 글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 ( )

- ① 제하가 전학을 가기로 함.
- ② 제하가 로운이에게 화를 낸.
- ③ 로운이와 제하가 화해를 함.
- ④ 로운이가 제하네 집을 찾아가 사과를 함.
- ⑤ 제하가 멋진 모습만 보여 주려고 거짓으로 행동함.

8 이 글로 보아, ‘황제하’는 어떤 인물입니까? .... ( )

- ① 잘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자신감이 넘친다.
- ② 로운이와 친하지만 로운이를 부러워하며 시기한다.
- ③ 로운이와 좋지 않은 관계였으나 서로 이해하고 인정한다.
- ④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다.
- ⑤ 로운이를 부러워하였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9 뒤에 이어질 두 인물의 관계를 이야기 흐름에 맞게 상상하여 쓰시오.

---



---

※ 진주가 비 오는 날에 겪은 일을 나타낸 그림과 그것을 이야기로 쓴 것입니다. 그림과 글을 비교하며, 물음에 답하시오. (10~13)



“상은아, 오늘도 비 온다. 체육은 할 수 있을까?”

인국이가 교실에 들어서며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그러게, 지긋지긋한 여름 장마다. 그렇지?”

“응, 그래도 난 이 비 덕분에 너랑 친해져서 좋기도 해.”

“자식, 또 그때 얘기야?”

인국은 4학년이 끝나 갈 즈음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다. 전학 온 첫날부터 친구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란스럽게 말을 걸고,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끼어들어서 나는 물론 친구들은 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던 인국이가 5학년이 되어 이렇게 친해진 건 며칠째 봄비가 내리던 날 체육 시간 때문이었다.

10 그림 ①로 보아,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 ① 비가 와서
- ② 운동장 공사를 해서
- ③ 체육관이 더 안전해서
- ④ 축구대가 체육관에 있어서
- ⑤ 다른 반이 운동장을 사용해서

11 그림 ②를 보고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 진주와 성훈이는 ( 같은 편, 다른 편 )이 되어 같이 축구를 하였다.

12 그림 ③에서 일어난 사건을 쓰시오.

---



---

